

뉴노멀 시대의 컨셔스 패션에 나타난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 연구

이달아 · 김찬호^{*†}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 한양여자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the Zero Waste Fashion Design in Conscious Fashion Perspective from the New Normal Era

Dal A Lee · Chan Ho Kim^{*†}

Researcher, Industry Research Institute of Hanya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 of fashion Design, Hanyang Women's University^{*†}
(2023. 8. 2 접수; 2023. 9. 19 수정; 2023. 11. 1 채택)

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about environmental severity and new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hanges. Conscious fashion, which is oriented to sustainable and valuable consumption, has become a trend to consume products produced using eco-friendly and ethical processes, from the selection of the product materials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conscious fashion and zero waste, and to explore design trends of zero waste in the new normal era of conscious fashion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cases. The research method is a literature review on conscious fashion based on relevant professional and academic books and articles, designer collections, and campaigns from 2010 to the present, when conscious fashion as eco-friendliness and sustainable fashion became a tren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onscious fashion were examined them in terms of environmental, ethical,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n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zero waste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case analysis. Through this, the trends of zero-waste design in conscious fashion were categorized into: first, an eco-friendly design orientation that utilizes reuse and reduce methods of clothing and fabric; second, a variable design orientation that practices zero waste designs by using diversity of patterns through deconstruction, disassembly, and various cutting methods. Third, long-term circulation of design through the recycling of resources by second-hand trade, the utilization of stock clothing, resale, and availability of eco-friendly material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s an active practice for the sustainable fashion industry expands, it is expected that continuous research will be conducted as a future core value to realize the possibility of long-term circular zero-waste design through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scious recycling, reuse, and reproduction.

Key Words: Conscious fashion(컨셔스패션), Zero waste fashion(제로웨이스트 패션), New-normal(뉴노멀), Sustainable design(지속가능 디자인), Eco-friendly design(환경친화적 디자인)

[†]Corresponding author ; Chan Ho Kim

Tel. *** - **** - ****

E-mail : joauchkim@naver.com

※ 이 논문은 2022년 정부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으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I. 서론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의 팬데믹은 전 세계의 사회, 문화, 경제 및 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는 안전한 의식주에 대한 우려와 환경보존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패션 산업은 환경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ESG 경영 및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는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했다(CJ뉴스룸, 2020). 정치, 사회, 환경 및 경제적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생산과 소비에 대한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인식이 더욱 생겨났다.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는 패션업계에서는 패션제품의 생산과 소비,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절감시키려는 제로웨이스트 패션과 윤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제품 생산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가치 있는 소비와 환경을 위한 친환경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 패션소비자들은 단순 소비에만 가치를 두지 않고 공유와 경험 등 비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과 환경적인 소재와 방식을 사용여부, 제조 공정과 과정의 정당성 등에 대해 살피기 시작했다(김소라, 2020). 지속가능한 상품의 생산과 구매, 사회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상품에 대한 소비의 컨셔스 패션과 자원절감의 제로웨이스트 패션은 뉴노멀 시대의 친환경을 실천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컨셔스 패션과 제로웨이스트 패션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라는 광고의 개념 안에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환경 실천적인 협의의 개념으로 기존의 컨셔스 패션과 제로웨이스트 패션의 연구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sustainable) 디자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친환경 패션, 에코 패션, 윤리적 패션 등 친환경 측면에서의 디자인을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환경 친화적인 태도로 인간과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변화된 뉴노멀 시대의 사회적 관점에서 본 컨셔스 패션의 특성을 살펴보고 컨셔스 패션에 나타난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컨셔스 패션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지속가능 패션의 범주에 포함된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인이나 지속가능 패션 연구를 통해 친환경의 측면을 강조한 연구(문윤경, 2019)나 구체적인 소재와 방식에 따른 디자인 분석 및 미적 특성 연구(박미선, 2021)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생산 환경과 인권에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 패션에 대한 연구(김소라, 2020)등이 있다.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측면에서의 제로웨이스트 디자인 개발 연구(국혜승, 김혜연, 2015; 김금화, 2020; 김숙현, 2021; 김숙현, 김혜연, 2018; 허진영, 2019)와 제로웨이스트 디자인을 위한 방법론적 측면의 디자인 연구로 다양한 커팅 방법을 활용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개발 연구(김정혜, 김혜연, 2018; 도간오쿰 외, 2022; 이유선, 최윤미, 2020; 이영선, 2017; 허가영, 2018)가 있으며, 다양한 커팅 방법을 활용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개발 연구가 있다. 윤진영과 임은혁(2015)의 디자인 방법론과 조신원과 이지현(2015)의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프로세스 가이드라인 개발 등 제로웨이스트의 디자인 방법이나 기법이나 디자인 프로세스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처럼 컨셔스 패션과 제로웨이스트 패션 연구는 지속가능의 유사 개념으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웨이스트 패션의 경우 기존의 고가의 친환경 패션 제품에 대한 시장의 진입장벽과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을 통한 새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한 거부감, 디자인의 심미적인 만족감의 결여 등으로 접근 용이성이 쉽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해 뉴노멀 시대의 ESG 경영에 적합한 컨셔스 패션으로서 제로웨이스트 디자인 역할이 환경과 인간, 새로운 가치와 소비를 추구하는 사회적 디자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컨셔스 패션에 나타난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을 통해 환경제품에 대한 시장 확대 및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유용한 연구 자료가 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컨셔스 패션으로서의 제로웨이스트 패션 상품 개발과 판매 방향 제시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의식 변화와 높은 비용으로 소비되던 제한적인 제로웨이스트 패션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소비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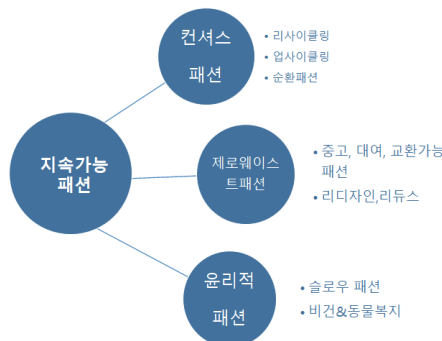
연구 방법으로는 뉴노멀 시대의 컨셔스 패션에 나타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방향성을 위해 이론적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뉴노멀 시대의 관점에 의한 컨셔스 패션을 환경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로웨이스트 패션의 디자인의 개념과 사례분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적극적인 지속가능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론적 연구는 컨셔스 패션과 제로웨이스트 패션에 관련된 선행 학위논문을 비롯한 학술자료, 국내·외 관련 전문 서적, 기관 보고서, 보도 자료, 미디어 기사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온 자료들을 수집, 분석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컨셔스 패션과 제로웨이스트 패션의 발생 배경, 개념, 현황 등을 분석하고 패션브랜드의 홈페이지와 신문, 패션잡지,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봄으로서 뉴노멀 시대에서의 그 의미를 살펴보고 개념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친환경 패션과 지속가능 패션의 인식이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컨셔스 패션이 두각을 보이기 시작한 소비층이 나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패션 기업 및 패션 제품과 컬렉션에 나타난 사례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관검색어 키워드 선정은 컨셔스 패션 브랜드, 제로웨이스트 패션, 업사이클링 패션, 지속가능한 패션 및 친환경 패션 브랜드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SPA 브랜드를 비롯한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 브랜드와 국내외 언론사

및 패션 관련 사이트에서 노출되었던 디자인이나 기사화 된 사례 등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경향 분석의 디자인 자료 수집은 패션 전문 사이트 보그닷컴(<https://www.vogue.com>)의 디자이너 컬렉션과 패션 기업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패션의 경향 분석의 자료를 선정하고, 그 특성을 나타낸 디자인과 캠페인을 사례와 국내·외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 노출된 인터넷 기사 및 시각적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크게 3가지 유형의 경향으로 구분하고 자원순환과 친환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실천적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I. 이론적 배경

1. 컨셔스 패션의 발생배경 및 개념

지속가능성의 가치 및 친환경과 관련된 개념의 컨셔스 패션(Conscious Fashion)은 ‘의식 있는’이라는 뜻의 단어인 ‘컨셔스(conscious)’와 ‘패션(fashion)’의 합성어로서 소재 선정에서부터 제조 공정까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과정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트렌드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며, 생산단계에서 배출되는 의류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3). 컨셔스 패션(양심적 패션)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의류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의 권리 및 환경과 인권 등 사회적



〈그림 1〉 지속가능 패션 (출처: 연구자정리)

책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패스트 패션의 급성장으로 인한 과잉 생산과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와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수질 및 대기 오염과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했으며, 패스트 제품 특성상 빠른 상품 수명주기로 인한 과잉 소비와 다량의 재고 처리, 자원낭비 및 노동력 착취 등 환경과 사회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 이후 이러한 문제가 수면위로 나타나면서 국내·외 패션산업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걸쳐 환경적 문제, 인권보호, 공정무역 등 사회적 문제해결의 대책 및 규제마련과 함께 ESG 경영, 윤리적 소비의 컨셔스 패션, 제로웨이스트 패션 등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최지흥, 2022). 패션기업들은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 H&M은 ‘컨셔스 컬렉션’을 선보이며 재활용 폴리에스터나 비건 소재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자라(ZARA)도 ‘조인 라이프’라는 생산 라인을 통해 유기농이나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 지속가능한 가치 소비를 이끌고 있다(김소라, 2020). 이처럼 컨셔스 패션은 버려진 의류나 폐기물을 재활용, 물 사용량을 줄이는 염색법 이용, 천연소재로 만든 의류 및 중고 의류의 공유 및 재활용 등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패션소비자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어긋난 브랜드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등 가치소비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제품, 업사이클 패션제품, 리사이클 섬유 등 컨셔스패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시사상식사전, png 지식엔진 연구소, 2023). 리서치앤드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컨셔스 패션 규모는 2019년 63억 5000만 달러(한화 약 7조 6,100억 원)에서 2023년 8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지흥, 2022). 현재 컨셔스 패션은 지속가능 패션, 윤리적 패션, 친환경 패션 등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패션이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 사회, 환경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닌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허가영, 2021). 지속가능 패션은 환경 친화적이며 윤리적인 사회적 실천 문제를 내포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컨셔스 패션과 제로웨이스트 패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순환적 패션산업을 지향하며 환경 친화적인 소재 사용의 친환경 패션, 슬로우 패션, 식물성 소재를 사용하는 비건 패션이나 동물 학대나 동물 실험을 가하지 않는 동물 복지 가능 패션, 윤리적 패션, 리사이클링 및 업사이클링 패션 등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1).

컨셔스 패션은 환경적·윤리적으로 의식 있는 행위의 주체 의식을 가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소비행동이며 사회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책임 의식이 반영된 실천방안이다. 패션기업은 생산 폐기물의 최소화, 화학물질, 에너지 및 물 사용량 절감, 저탄소 시스템 구축등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생산활동과 안전한 작업환경과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나친 소비에 대한 욕구 지양, 기술과 장인정신을 보전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동반 실행하는 노력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컨셔스 패션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과 이벤트를 통해 친환경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참여를 독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하며 신념 소비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등 컨셔스 패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의 증가로 컨셔스 패션의 제품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된 시장이 형성되며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김소라, 2020). 이러한 변화는 중고시장의 확대, 리커머스 시장의 성장, 글로벌 패션 중고마켓의 성장 및 소비자의 가치가 반영된 제품의 출시 등 다양하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2. 뉴노멀 시대적 관점에서 본 컨셔스 패션의 특성

뉴노멀(new normal)이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 가치 및 새로운 표준의 뉴노멀은 금융위기로 인한 계속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낮은 고용 등으로 만들어진 경제 질서를 통칭하는 신조어로 급속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었다(이정재,

2021). 뉴노멀은 경제, 기술, 사회,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가치, 기준, 규범에 대치되는 새로운 표준으로 생활방식과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해오고 있다(정현, 2018). 환경 의식의 변화, 관심 증대와 과잉소비의 지양 등 소유보다는 경험의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변화는 많은 패션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의 의견과 가치가 반영된 상품기획과 생산 및 판매로 이어지는 등 적극적인 변화로 나아가고 있다(문윤경, 2019).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기준과 변화의 뉴노멀 시대에 나타나는 컨서스 패션의 특징을 환경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컨서스 패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의 컨서스 패션은 과잉생산 및 소비로 인한 높은 환경 의식이 반영되어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 소재나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와 같은 재생섬유의 신소재 개발과 의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특수 원단을 재활용하여 업사이클링 등 생산과정에서 마지막 판매 이후 발생한 의류 폐기물이나 원단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성의 특성을 지닌다. 에슬레저 브랜드 몰라<그림 2>는 생분해가 가능한 옥수수에서 뽑은 친환경 원사와 PET 소재 패트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폴리' 원단의 '에코 플

리스 자켓 베스트 세트'로 고품질의 친환경 제품을 출시하였다(최지홍, 2022). 스텔라 매카트니와 패션 브랜드 가니<그림 4>는 버섯의 균사체로 만든 마이로(Mylo)를 이용하여 가방제품을 선보여 탄소배출은 물론 비건 소재의 개발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패션넷코리아, 2022). 마린 세르<그림 4>는 수명을 다한 옷이나 재고 소재, 버려진 옷감이나 스카프, 카펫 등을 활용해 제작하는 컬렉션을 '리제너레이티(REGENERATED)'라 명명하고, 헌 옷을 수집해 자르고 다시 바느질하는 과정을 통해 '에코퓨처리스트(Eco-futurist)'라는 브랜드의 신념을 지키며 책임감과 의무를 강조하였다(명수진, 2022).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 본 컨서스 패션은 의식 있는 가치 소비의 증가로 대여와 공유 및 재판매 등을 통한 실용성 및 효용성의 특성을 갖는다. BCG(Boston Consulting Group)와 베스티에르 콜렉티브의 보고서에 의하면 럭셔리 및 중고 패션 시장은 2020년 이후 3배 규모로 성장했으며 현재까지 리세일 제품은 중고 제품을 2023년에는 27%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패션넷코리아, 2022)<그림 5>.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에서 재판매의 관심과 리세일은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소비 방법으로 느끼고 있다고 구매자의 40%



<그림 2> 몰라

(출처: <https://www.m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34>)



<그림 3> 스텔라매카트니·가니

(출처: <https://www.fashionnet.or.kr/sustainability/88237/>)



<그림 4> 마린세르

(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1-ready-to-wear/marine-serre>)



<그림 5> 미국 중고시장 연간 규모 및 예측

(출처: <https://www.fashionnet.or.kr/sustainability/109009/>)

이상이 중고구매를 지속가능한 소비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진선, 2022).

국내의 경우 온라인 명품 플랫폼 ‘트랜비’는 개인 간 명품 리세일의 명품 중고거래를 시작했으며, ‘클로젯쉐어’(그림 6)는 중고와 렌탈의 하이브리드형 ‘패션 셰어링’ 플랫폼으로 대여와 판매로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였다(심희정, 2021).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그림 7)는 오프라인 컨셉트 스토어 ‘브그즈트랩(BGZT Lab)’을 오픈하여 명품 중고 위탁 판매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이서연, 2022).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도 재판매 플랫폼(그림 8)을 운영하고 있으며 패스트패션 브랜드 자라는 ‘Zara Pre-Owned’ 플랫폼(그림 9)을 출시하여 중고제품의 재판매, 수선 및 다른 브랜드 제품을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패션넷코리아, 2023). 대여와 고유 및 재판매는 탄소 배출량과 제품 생산 규모의 절감, 중고제품과 공유, 재판매의 인식 변화 및 소비 방식은 컨서스 패션의 실용성 및 효용성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컨서스 패션은 윤리적인 과정을 통해 의류를 소비하고, 소비자들이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친환경적인 정보를 통한 소비와 소비 이후의 전 과정에 스스로 관여하는 윤리적인 특성을 지닌다. 비코프(B-corp)인증 받은 파타고니아(그림 10)는 ‘리

페어 튜토리얼(Repair Tutorial)’을 공개해 소비자가 직접 옷을 수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 옷을 사기보다 이미 입고 있는 옷을 수선해 오래 입자는 환경 캠페인 ‘원웨어(Worn Wear)’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공정무역 인증 시스템을 생산 공장에 도입, 생산 노동자들에게 복지혜택 제공, 자연 환경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및 사회와 인간을 위한 실천을 하고 있다(안재형, 2022). 스텔라 매카트니(그림 11)는 친환경 원료, 재활용 소재, 비건 소재 개발과 퍼 프리(fur-free) 등 동물복지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의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로 컨서스 패션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김미영, 2020).

국내 사회적 기업 할리케이(그림 12)는 버려진 청바지, 커피자루, 한지 가죽 및 비건 가죽을 이용한 리사이클링 제품으로 친환경 소비를 패션 분야를 넘어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며(장지영, 2021), 경력 보유 여성과 시니어들과 함께 일하며 리사이클 소재 및 환경 친화적 소재를 접목한 디자인 개발과 업사이클 제품 생산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정민, 2021). 피엘라벤(그림 13)도 환경영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옷의 물리적, 감성적 수명 연장을 위한 디자인 기능성 강화, 재생섬유와 화학약품 처리를 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 개발, 인권, 동물복지, 탄소배출 감소를 통한

□ CLOSET SHARE



〈그림 6〉 클로젯쉐어
(출처: https://blog.naver.com/shareit_kr/222791929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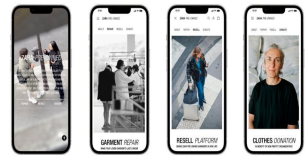
〈그림 7〉 브그즈트랩 (BGZT)

(출처: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25>)



〈그림 8〉 발렌시아아 리세일 플랫폼

(출처: <https://www.fashionnet.or.kr/sustainability/109009/>)



〈그림 9〉 Zara pre-owned platform

(출처: <https://www.fashionnet.or.kr/sustainability/109009/>)



〈그림 10〉 파타고니아

(출처: <https://www.mk.co.kr/news/culture/10382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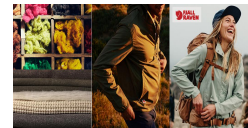
〈그림 11〉 디자이너컬렉션

(출처: <http://m.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2>)



〈그림 12〉 할리케이

(출처: <http://www.fashionbiz.co.kr/PN/?cate=2&recom=2&idx=195436>)



〈그림 13〉 피엘라벤

(출처: <https://m.fjallraven.co.kr/app/content/v2/aboutus/sustainability>)

〈표 1〉 뉴노멀 관점에 의한 컨서스 패션의 특성

뉴노멀 시대적 관점	특성	내용
환경적 측면	친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소재, 유기농 소재 및 재생섬유 사용 · 저탄소배출, 의류 폐기물 및 물 사용 감소 ·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및 리유즈
경제적 측면	실용성 및 효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소비추구 · 공유, 대여, 수선 · 중고거래 플랫폼 사용의 활성화
사회, 문화적 측면	윤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존중 · 윤리적 패션 · 사회공헌 및 윤리경영

환경보호 및 기후보상 실천, 비영리단체와 협업 등 윤리경영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fiallaven.co.kr). 컨서스 패션의 사례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해 컨서스 패션의 개념과 사례를 분석하고 뉴노멀 시대의 관점에서 본 컨서스 패션의 특성을 〈표 1〉에서와 같이 정리하였다.

3. 제로웨이스트 패션의 개념 및 특징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의 발달과 대량생산으로 환경오염 및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마주하면서 환경과 윤리적 가치 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컨서스 패션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의 패러다임은 제품 사용 후 쓰레기 및 폐기물의 관리 및 이를 감량하기 위한 원재료와 상품의 사용주기를 연장하면서 의류 폐기물의 최소화와 감량화 등 그 의미가 확산되고 있다(허진영, 2019). 제로웨

이스트의 사전적 의미는 제로(ZERO)와 웨이스트(WASTE)의 합성어로 1970년대 화학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화학자 폴 파머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재활용에 중점을 두면서 제로 웨이스트는 5R(Refuse, Reduction, Reuse, Recycle 및 Rot) 운동으로 성장하였다(Jason Walsh, 2017).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과정부터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과 에너지의 감량 및 탄소발생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김인경 외, 2016). 제로웨이스트의 개념은 고대 복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파슨스 디자인 스쿨 교수 티모 리사넬에 따르면 한 장의 원단으로 신체에 감싸는 형태나 구멍을 뚫거나 꿰매어 입는 그리스의 키톤(Kiton)과 히마티온(Himation), 인도의 사리(Sari), 일본의 기모노(Kimono)와 두루마기도 제로 웨이스트 개념을 포함한다(국혜승, 김혜연, 2016). 디자인 기획 단계부터 소비가 되는 전 과

〈표 2〉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특성

제로웨이스트 특성	내용
자원의 재순환과 재활용을 통한 순환적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소재, 유기농 소재 및 재생섬유 사용 · 리듀스, 리유즈를 통한 폐기물 감량 · 의류 폐기물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및 리유즈를 통한 제품의 순환적 지속성
의복구성방법을 통한 다양한 표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패턴 변형에 의한 자유로운 표현성 · 다양한 착장 변형을 통한 구성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형태 구축 · 다양한 접기, 커팅방식과 최소재단 및 무재단 등을 통한 형태와 선의 변형을 통한 우연성과 의외성을 통한 독창적인 표현성
자원의 최소화를 통한 기능적이며 간결한 단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단사용의 최소화, 디자인 요소의 장식성을 배제 등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미와 절제미 추구 · 다양한 기능을 통한 제품의 수를 감소하여 자원 사용의 최소화 · 디자인의 유동성과 자율적인 특성을 통한 제품 수명을 연장 및 용도 변경



〈그림 14〉 씨루프트렌치코트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9263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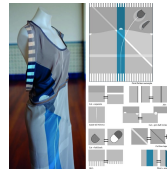
〈그림 15〉 Oats Shoes

(출처: <https://www.oatshoes.com/>)



〈그림 16〉 퍼즐커팅

(출처: <https://hollymcquillan.com/2011/04/06/yieldjulia-lumsden-habiliments/>)



〈그림 17〉 피겨커팅

(출처: <https://hollymcquillan.com/category/sustainable-design-practice/zero-waste/>)



〈그림 18〉 폴드커팅

(출처: <https://fashion-incubator.com/review-of-the-yield-exhibition-zero-waste/>)

정과 재고 및 폐기 되는 패션 상품의 무분별한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 및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경제적이고 환경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개념이다. 원단 폐기량의 경우 서울 내 봉제공장에서 연간 4만t(톤)이 넘는 원단 자투리 폐기물이 배출, 매립·소각되는 실정이다. 대량의 원단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봉제원단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순환경제 흐름에 맞춘 제로웨이스트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안승진, 2022).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디자인 개발연구와 다양한 커팅 방식을 이용한 다양한 의복구성 방법, 자원의 재활용, 업사이클링 디자인 방법 및 패션 상품의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커팅방식을 이용한 디자인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로 웨이스트 패션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첫째, 자원의 재순환과 재활용을 통한 순환적 지속성, 둘째, 의복구성 방법을 통한 다양한 표현성, 셋째, 자원의 최소화를 통한 기능적이며 간결한 단순성 등 3가지로 분류하여 <표 2>에서 정리하고 <표 3>에서는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의 특성으로는 첫째, 자원의 재순환과 재활용을 통한 순환적 지속성이다. 천연소재의 사용이나 재생섬유의 사용과 제작 후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이나 폐 의류 자재를

이용하는 자원의 재순환 및 재활용과 제품수를 줄이는 등 자원절감을 통한 친환경적이며 순환적인 지속성의 특성을 갖는다. 라이프웨어 브랜드 나우(그림 14)는 생분해 원단을 사용한 '씨루프(C.loop) 트렌치코트'는 폐 페트병과 산업 폐기물로 만들어진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제품 폐기 시 자연 분해가 가능하며 친환경 발수제와 야자열매를 이용한 단추를 사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패션을 염두한 제조과정으로 생산하였다(심상대, 2022). 네덜란드 프로덕트 디자인 크리스티앙 메츠에 의한 오토 슈즈(Oat Shoes)에서 출시한 친환경 운동화 '버진 컬렉션(Virgin Collection)'(그림 15)은 100% 생분해성 원료로 다양한 신발을 제작하였으며, 운동화 자체에 씨앗이 있어 사용 후 토양에 묻으면 나무가 자랄 수 있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환성 실현하고 있다(oatshoes.com).

둘째, 의복 제작 시 소요되는 원단 폐기량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레이아웃을 미리 구성하고 기획하고, 퍼즐 방식의 패턴 제작이나 접거나 독창적인 커팅방식을 적용하여 나타난 다양한 표현성이다. 홀리 맥퀼리안은 퍼즐형식의 커팅법(그림 16)으로 원단 소요량을 절감하고(hollymcquillan.com), <그림 17>의 피겨커팅은 필요한 형태만 선택적으로 커팅하고 새로운 형태를 재구성하여 표현의 다양성을 극대화한다(김인경 외, 2016). 데이비드 텔퍼(David Telfer)는 접거나 겹치는 방법의 폴드

〈표 3〉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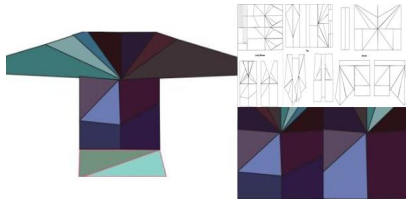
분류	저자	제목	제로웨이스트 실현 방법	제로웨이스트 패션 특성
디자인 개발 연구	김숙현(2021)	친환경 패러다임에 기초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연구	· 유스업 패턴, 가먼트 셰이핑 · 유스 컨버팅	· 자원의 지속성, 발상의 혁신성 · 구성의 자율성, 착용방법의 효율성
	김금화(2020)	패 니트 의류를 이용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과 업사이클링 아이템 연구	· 해체 · 업사이클, 리사이클	· 자원의 지속성 · 표현의 자율성
	김숙현,김혜연(2020)	한국 전통 끈 보자기의 조형미를 적용한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 연구	· 유스업 패턴, 가먼트 셰이핑 · 유스 컨버팅	· 지속성, 독창성 · 전통성
	허진영(2019)	제로웨이스트를 적용한 가방디자인 연구	· 올유즈 커팅 방법	· 독창성, 간결성
	김숙현,김혜연(2018)	종이접기의 조형미를 적용한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 연구	· 폐기물 제로방식 · 폐기물 최소화, 폐기물 재사용	· 올동미, 중첩의 미 · 직선적 조형미, 부조적 형태미
	김인경 외(2016)	순환형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 개발	· 퍼즐커팅, 모듈커팅 · 폴트커팅, 피겨커팅 · 서브트랙션커팅	· 디자인발상의 유동적 전환 · 디자인 표현의 의의성과 유연성 · 디자인과 패턴의 상호순환
	국혜승,김혜연(2015)	지속가능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특성 연구	· 퍼즐커팅, 모듈커팅 · 서브트랙션커팅 · 폴트커팅, 피겨커팅	· 발상의 자유로운 전환 · 구성방법의 자율성 · 표현의 의의성과 유연성 · 물질의 질체에 따른 간결성
	정하정,박주희(2015)	파츠파츠 임선옥(PartspARTs IMSEONOC)의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디자인 연구	· 소재와 제작공법 · 평면재단의 창의적 활용 · 지속가능 경영	· 폐기물 최소화 · 독창적인 패턴방식 개발 · 고품질 슬로우 패션의 지속가능 경영
디자인 방법론	도간오름 외(2022)	소피아 비조비티 폴딩 기법을 활용한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	· 폴딩기법 · folded brick, fold-pleat · score-cut pull up, stretch	· 창의성·연속성, 유동성 · 가변성·조형미 · 기능성
	유현,이신영(2020)	제로웨이스트 패션 한복 개발에 관한 연구 - 비추출퍼팅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 지오메트릭 커팅기법 · 다른색상, 원단을 교환하는 복수 원단 방식	· 실용성, 효율성 · 다양성, 장식성
	이유선,최윤미(2020)	칠교놀이와 접기를 활용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연구	· 패턴커팅-퍼즐커팅, 모듈커팅, 미니멀 커팅방식 · 논 커팅 방식-서브트랙션, 에이폭, 소재에 의한 방식	· 창의성 · 사교력증진 · 다양성
	이상윤(2018)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 특성 연구	· 에코패브리 사용 · 커팅방식, 니팅, 워빙 · 눈우븐, 업사이클링 방식	· 창의적인 조형미 · 가변적인 스타일링 · 활용도 높은 아이템 구성
	김정혜,김혜연(2018)	퍼즐 커팅 기법을 적용한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 연구	· 자체 완결형 · 복수원단형, 내장형	· 유연성, 동시성 · 연계성, 우연성
	허가영(2018)	남성복 제로웨이스트 패턴 커팅 연구	· 직소우 커팅, 미니멀 커팅 · 지오메트릭 커팅	· 자율성, 단순성 · 최소화
	이영선(2017)	서브트랙션 커팅방법을 활용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개발	· 서브트랙션 커팅	· 창의성 · 우연성, 다양성
	윤진영,임은혁(2015)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 실현을 위한 디자인 방법론-ZWPM 유형 특성을 중심으로-	· Zero-Waste Pattern Cutting(ZWPC) · Non PatternCutting(NPC)	· 최소화 · 계로화 · 다양성
	정하정,박주희(2015)	파츠파츠 임선옥(PartspARTs IMSEONOC)의제로 웨이스트(Zero-Waste) 디자인 연구	· 하나의 소재 사용 · 해체, 조합, 고압력 접착공법	· 소재와 제작공법에 의한 폐기물 최소화, 평면재단의 창의적 활용성 ·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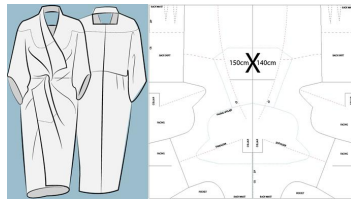
〈그림 19〉 모듈커팅방식
(출처: <https://carlosvillamil.com/zero-waste-fashion>)



〈그림 20〉 서브트랙션 커팅방식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985231154893332/>)
(출처: <https://www.thecuttingclass.com/subtraction-pattern-cutting-with-julian-roberts/>)



〈그림 21〉 David Anderson
(출처: <https://zerowasteurope.eu/2012/06/david-anderson-copenhagen-designing-waste-out-of-fashion/>)



〈그림 22〉 Holly McQuillan
(출처: <https://hollymcquillan.com/author/hollymcquillan/>)



〈그림 23〉 하이사이클
(출처: <https://blog.hyosung.com/4838/>)

커팅(그림 18) 방식으로 남성용 더플코트를 고안, 비용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효율성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Kathleen Fasanlla, 2011).

카를로스 빌라밀(그림 19)은 일정한 형태의 모듈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유닛의 해체와 조립 및 커팅을 이용한 방식을 채택한다(carlosvillamil.com). 〈그림 20〉은 줄리안 로버츠의 서브트랙션 커팅방식으로 한 장의 원단에 구멍을 내어 뒤집거나 접어서 말기 등을 이용하여 재단한 것으로 자유스러우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디자인의 다양한 표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된 의복은 창의적인 형태와 선으로 패션의 다양성과 착용자의 착장 방식에 따라 자율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하여 새로운 형태와 조형미로 다양한 표현성을 갖는다(핀터레스트, thecuttingclass.com). 셋째, 자원의 최소화를 통한 기능적이며 간결한 단순성이다. 원단의 최소한 사용은 간결한 실루엣과 인위적인 장식성을 배제한 미니멀리즘을 실현하며 패턴구성법을 이용하여 세련된 단순성으로 데이비드 안데르센(그림 21)은 자신의 컬렉션을 통해 기하학적 패턴을 구성하여 100%의 원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폐기물과 원단낭비를 줄이면서 단순한 디자인으로 통합하여 미니멀리즘의 미학을 표현한다(Joan Marc, 2012). 홀리 맥퀸리안(그림 22)도 단

순한 패턴구성법을 통해 최소한의 원단을 사용해 미니멀한 기모노 드레스를 디자인하여 단순성을 표현한다(hollymcquillan.com). 하이사이클(Hicycle) 〈그림 23〉은 원두를 수입할 때 사용되는 커피 자루를 이용하여 가방, 파우치, 썸 슬라이브와 코스터, 화분 등의 제품으로 자원을 최소화 하여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 상품을 제작하였으며 이외에 폐현수막, 페트병 등을 재사용한 프라이탁이나 국내 사회적 기업의 터치포굿맨 등에서 희소성 있는 제품으로 환경보호와 가치 있는 소비의 스토리를 부여하여 자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간결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표현한다(미디어효성, 2020).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컨서스 패션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하며 단순히 사회적 가치 뿐 아니라 환경적 가치와 기업의 윤리성을 고려한 의식있는 신념 소비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소비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는 자원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생산 활동으로 새로운 친환경제품에 대한 시장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등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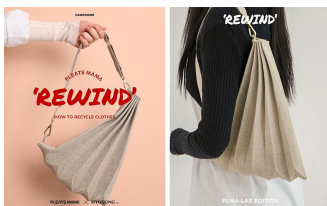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1. 컨서스 패션에 나타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경향

컨서스 패션에 나타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컨서스 패션의 개념과 발생배경과, 그 특성을 친환경성, 실용성 및 효용성, 윤리성 등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또한 제로웨이스트 패션의 개념과 제로웨이스트 디자인의 사례를 통해 첫째, 자원의 재순환과 재활용을 통한 순환적 지속성, 둘째 의복구성 방식을 통한 다양한 표현성, 셋째 자원의 최소화를 통한 기능적이며 간결한 단순성, 3가지 특성으로 도출하였다.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컨서스 패션에서 나타난 제로웨이스트 패션의 특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적극적인 지속가능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뉴노멀 시대적 관점에 의한 컨서스 패션에서 나타난 제로웨이스트 패션의 디자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류 및 원단 폐기물과 재활용의 리유즈(reuse)와 리듀스(reduce) 방법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디자인 지향이다. 친환경성 소재나 복합 섬유 제조 및 공정 기술에 의한 생분해성 소재 및 재생섬유 사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의류 생애 주기에서 최종 폐기 단계까지 환경에 유해한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탄소저감 효과와 자원의 리듀스, 리사이클을 통한 재순환과 낭비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가먼트 리사이클(Garment Recycle)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을 실현한다. <그림 24>은 효성티앤씨와 플리츠마마가 함께 기획한 리와인드 프로젝트로 100% 폐기된 원단을 재활용하여 만든 원사를 재활용하여 새들백을 제작했다. H&M은 ‘가먼트 콜렉팅’ <그림 25>을 통해 입지 않는 의류를 매장에서 수거하여 재착용이 가능한 의류는 세계 중고시장에 유통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재생산, 원사 및 다른 산업재의 부자재로 활용하고 있다. 헌 옷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바꾸는 가먼트-투-가먼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루프(Loop)’를 개발하여 섬유로 잘게 분해하여 원사로 만든 뒤 새로운 패션 아이템을 만들어 재사용하는 자원의 순환적인 지속성을 나타낸다(미디어효성, 2022). 국내 면방업체 전망<그림 26>은 폐데님을 수거해, 분해 해체하여 만든 리사이클 데님으로 탄생시키는 리사이클 데님 기술을 선보이며 리사이클 데님의 시장 가능성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친환경 패션산업을 이끌고 있다(김성준, 2022). 리바이스 워터리스 진(waterless jean)<그림 27>은 리바이스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고안된 헴프(hemp)원사로 적은 물을 사용하고, 나무로 만들



<그림 24> 플리츠마마

(출처: <https://blog.hyosung.com/5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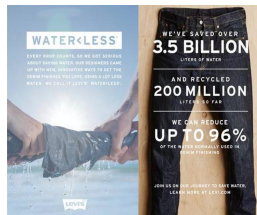
<그림 25> H&M

(출처: <https://blog.hyosung.com/5395>)



<그림 26> 블루비스트

(출처: <https://www.tinnews.co.kr/23625>)



<그림 27> 워터리스 진

(출처: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46707>)



<그림 28> 디젤데님

(출처: <https://www.harpersbazaar.co.kr/article/78385>)



〈그림 29〉 파츠파츠

(출처: <https://m.blog.naver.com/yhe0928/222523123030>)



〈그림 30〉 다니엘 실버스타인

(출처: <https://m.thesingle.co.kr/article/708020/THESINGLE>)



〈그림 31〉 막스마라

(출처: https://www.fashionn.com/board/read_new.php?table=1025&number=28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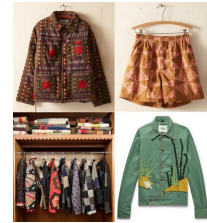
〈그림 32〉 아티저널컬렉션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oo_too_loo&logNo=20139667126)



〈그림 33〉 메종 마르지엘라

(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couture/maison-martin-margiela>)



〈그림 34〉 BODE

(출처: https://jentestore.com/promotion/event_view?no=509&event_category=Brand%20LAB)

어진 텐셀 소재와 리사이클 폴리 소재를 사용하여 쓰레기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있다(황소현, 2021). 디젤(그림 28)은 자투리 원단을 수거, 분류, 재활용을 통해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질의 자투리 원단을 다른 공급망을 통한 다운사이클링으로 원단 재단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재활용 섬유를 사용하여 물을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유해 화학물질 방출을 최소화해 이를 이용한 데님 컬렉션을 공개할 예정이다(제혜운, 2023).

둘째, 다양한 커팅방식과 패턴의 해체 및 분해 등을 이용하여 원단 및 폐기물 재료를 실천한 가변적 디자인 지향으로 새로운 패턴 방식으로 폐기물과 장식성을 최소화 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실천한다. '파츠파츠 임선옥' (그림 29)은 다트가 없는 원형(dartless sloper)을 퍼즐처럼 맞춰 배치, 패턴 내부를 분할하여 재단과정에서 각기 다른 색상 혹은 질감의 원단이 서로 교환되도록 설계하는 방식과 면 분할에 따른 독특한 디자인의 절개, 다른 색상의 조합, 고압력 접착공법 등을 이용하여 독창적 실루엣의 가변적인 디자인을 표현하였다(정하정, 박주희, 2015). 뉴욕기반의 제로웨이스트 디자이너 다니엘 실버스타인(그림 30)

은 버려지는 원단, 스크래치 나거나 자르고 남은 자투리 원단, 의류 폐기물이나 헌옷을 이용하여 새로운 텍스타일로 제품화 한다. 패치워크 및 아플리케 등의 봉제 기법을 통해 실루엣, 디테일의 변화를 통해 유니크하고 트렌디하게 변화하는 등 가변적인 디자인 경향을 갖는다(김루비, 2019). 막스마라(그림 31)는 자투리 원단을 이용한 카메라스라는 새로운 절연 소재를 이용한 코트를 제작하고 자투리 데님을 이용한 패치워크 봉제법으로 원단 자투리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에너지와 물 소비량, 폐기물 발생, 탄소배출의 감소 등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독창적인 가변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유재부, 2019).

마틴 마지엘라의 아티저널 컬렉션(그림 32)에서는 깨진 도자기, 낡은 샌들, 쓰고 난 잠갑 폐기된 패션제품이나 낡고 버려진 물건 및 빈티지 제품의 소재특성을 살려 재조합하는 등 아이템의 전환을 통해 타인에 의해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는 점과 시간성을 지닌 점을 중시하며 수작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시켜 낡은 오브제와 의류, 재활용은 다른 형태로 기능을 전환하는 가변적 디자인의 특징을 나타낸다(네이버블로그, 2011). 또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옷을 마음대로 섞어 입을



〈그림 35〉
비비안웨스트우드

(출처: <https://www.wkorea.com> /2017)



〈그림 36〉 3차원 가상
디자인

(출처: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206>)



〈그림 37〉
레코드리테이블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25952#home>)



〈그림 38〉
레나패션라이브러리

(출처: <https://www.mk.co.kr/news/business/8902283>)



〈그림 39〉 다시입기연구소, 21% 파티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0/112779317/1>)



〈그림 40〉 공정무역 패션레볼루션

(출처: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97>)

것은 물론, 기존에 있던 옷을 찢고 뜯고 붙여 재조합한 〈그림 33〉의 ‘레플리카’ 라인도 착장방식이나 패스너의 변형, 착용자에 의한 가변 등을 이용하여 하나의 디자인으로 다른 다양한 새로운 디자인의 가변적 디자인 지향의 특성을 갖는다. 미국 브랜드 ‘보디’〈그림 34〉는 독특한 켈팅기법과 아플리케, 뜨개질, 빈티지 원단들을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에너지와 자원 절감의 제로웨이스트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다(윤승, 2023).

셋째, 컨서스 패션에 나타난 제로웨이스트 패션은 장기적인 순환성을 지향하고 있다. 착용 횟수에 따르는 가성비 좋은 소재의 의류 아이템의 소비나 유행을 따르지 않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택하는 등 옷의 감성적 수명을 연장하여 의류 폐기물을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림 35〉의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Buy Less, Choose Well, Make It Last(적게 사고, 잘 고르고, 오래 입자)의 슬로건으로 옷장 속의 입지 않는 옷, 낡은 옷, 손상된 옷을 꺼내 소비를 줄이고, 자원의 순환을 위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이채민, 2017). 헤지스와 세정(그림 36)은 상품 기획과 제작 과정을 클로버추얼 3D 기술을 이용하여 완성된 의류를 확인하여 폐기물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김현경, 2022). 코롱의 레코드

〈그림 37〉는 재고 의류를 모아 새로운 상품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리테이블’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진행, 친환경 인식의 고취와 환경을 중요성을 전파하는 활동을 한다(윤경희, 2020). 빈티지 의류나 중고 의류 제품을 통해 재순환할 수 있는 매장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의류 공유 매장 레나패션라이브러리(그림 38)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요르단거리에 있는 이 매장은 낡아 입었던 옷을 10유로에 한 번 빌려 입거나 새 옷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고 무분별한 의류 생산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윤리적인 의식의 고취로 빈티지 샵을 통한 소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이한나 외, 2019).

다시입다연구소(그림 39)의 21%파티는 옷장 속의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가지고 바꿔 입고 나눠 입는 재사용의 지속가능한 순환을 실현하는 캠페인이다. 교환과 재사용(Reuse), 수선, 리폼 등으로 제품의 사용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제공과 옷의 의미와 물건에 대한 소중함 등 개인의 스토리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와 손뜨개, 천연염색 등 예술 워크숍도 진행 하는 등 다양한 제로웨이스트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강은지, 2022). 패션운동 단체 ‘패션 레볼루션’〈그림 40〉은 방글라데시의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

〈표 3〉 컨셔스 패션에 나타난 제로웨이스트 패션의 특성

컨셔스 패션에 나타난 제로웨이스트 패션 특성	내용
환경친화적 디자인지향	재생섬유, 재사용, 재활용을 이용한 친환경성 추구
가변적 디자인 지향	다양한 커팅 방식을 이용한 패턴활용, 켈팅, 패치워크 및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봉제방식을 통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조형미 추구
장기적 순환성 지향	사회적 메시지 전달하고 윤리적이며 사회, 경제적 순환성을 지향하는 지속가능성 추구

이후 재발 방지 캠페인으로 의류 생산 과정에서의 투명한 노동 환경과 공정한 무역을 위한 캠페인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구매한 의류의 상표와 해시태그를 붙이면 의류 공급망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내가 이 옷을 만들었다(I made your clothes)'라고 소비자에게 대답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명한 공급과정과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보호, 정당한 임금 제공 등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캠페인(이은지, 2016)으로 환경보호와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윤리적이며 사회, 경제적인 장기적인 순환성을 지향하는 디자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표 3〉에서 컨셔스 패션에 나타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V. 결론

패션 산업에서 환경과 기후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이 중요해지자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패션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고취되었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인 측면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더욱 필요로 되었으며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가치 있는 소비와 생산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트렌드를 반영한 패스트 패션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환경, 기후문제 및 에너지 자원 낭비 등의 현대 패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패션 기업들은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인의 표현욕구와 개성이 강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의식 있고 가치 있는 소비자 컨셔스 패션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중심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컨셔스 패션의 발생 배경과 개념을 분석하였다. 먼저, 컨셔스 패션의 사례를 통해 뉴노멀 시대에 나타나는 컨셔스 패션의 특징을 환경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첫째, 친환경성, 둘째 실용성 및 효용성, 셋째 윤리성으로 분석하였다. 제로웨이스트의 개념과 특성을 선행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그 특성을 자원의 재순환과 재활용을 통한 순환적 지속성, 의복구성방법을 통한 다양한 표현성, 자원의 최소화를 통한 기능적이며 간결한 단순성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컨셔스 패션에 나타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컨셔스 패션으로서의 제로웨이스트 패션 상품 개발과 판매 방향 제시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컨셔스 패션에 나타난 제로웨이스트의 특성은 첫째, 의류 및 원단 폐기물과 재활용의 리유즈(reuse)와 리듀스(reduce) 방법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디자인 지향이다. 친환경성 소재나 복합 섬유 제조 및 공정 기술에 의한 생분해성 소재 및 재생섬유 사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의류 생애 주기에서 최종 폐기 단계까지 환경에 유해한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해체, 분해, 다양한 커팅 방식을 이용한 패턴의 다양성을 이용하여 원단 및 폐기물 제로를 실천한 가변적 디자인 지향으로 새로운 패턴 방식으로 폐기물과 장식성을 최소화 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실천한다. 버려진 원단, 자투리 원단 및 폐기된 의류를 활용하여 켈팅, 패치워크,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봉제 기법을 통하여 아이템의 변화, 디테

일의 변화 등 가변적인 디자인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 자원의 낭비를 줄여 독창적인 디자인을 표현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가치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순환성의 디자인을 지향한다. 중고 거래, 다시입기, 재고의류 활용, 재판매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친환경 소재의 사용가능성을 통해 의류의 물리적인 수명과 감성적인 수명을 연장하여 자원의 재순환을 통한 장기적인 순환 사이클을 만들며 제품의 수명 연장과 재순환이라는 시간성을 지향하고 있다. 컨서스 패션과 제로웨이스트 패션은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지속가능한 패션의 개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해 기업 주도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컨서스 패션과 제로웨이스트 패션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독립적이고 소비자 주도적인 소비 활동 및 생산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컨서스 패션이나 제로웨이스트 패션으로 오염된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방법이 될 수 없으며, 각 패션업체의 그린워싱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와 자원 절감과 재순환을 통한 제로웨이스트 개념은 패션 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미래를 위한 인간과 사회를 위한 선순환이 될 지속가능한 핵심 가치로서 좀 더 명확한 개념 전달과 뉴노멀 사회에 적합한 차별화된 디자인과 기업의 정직하고 윤리적인 좋은 품질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의 유한성의 인식과 윤리적이고 예술적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디자인의 장기적인 계획 및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적극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명성 있는 기업의 책임 경영으로 환경 중심의 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은지. (2022. 4. 14). “새 옷 대신 추억 담긴 옷”... 중고의류 교환 파티 여는 ‘다시입다 연구소’.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23. 2. 20, 자료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

410/112779317/1

국혜승, 김혜연. (2015). 지속 가능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의 특성 연구. *기초초형학연구*, 17(1), 31-45.

김금화. (2020). 폐 니트 의류를 이용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과 업사이클링 아이템 연구. *패션과 니트*, 18(3), 94-102.

김루비. (2019. 6. 3). 버려진 천의 환골탈태, 제로 웨이스트 다니엘. *더싱글*. 자료검색일 2023. 3. 3, 자료출처 <https://m.thesingle.co.kr/article/708020/THE SINGLE>

김미영. (2020. 3. 1). ‘착한 패션’ 선구자, 스타라 매카트니. *이코노미인사이트*. 자료검색일 2023. 3. 23, 자료출처 <http://m.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2>

김성준. (2022. 10. 20). 전방, “리사이클로 데님 부활 이끈다”. *TIN뉴스*. 자료검색일 2023. 1. 20, 자료출처 <https://www.tinnews.co.kr/23625>

김소라. (2020). 현대 패션에 나타난 컨서스 패션. *조형디자인연구*, 23(1), 11-32.

김숙현. (2021). *친환경 패러다임에 기초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숙현, 김혜연. (2018). 한국 전통 끈 보자기의 조형미를 적용한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3). 127-145

김인경, 차유미, 이진아. (2016). 순환형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개발. *디자인학연구*, 29(2), 215-229.

김정혜, 김혜연. (2018). 퍼즐 커팅 기법을 적용한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18(1). 37-55.

김현경. (2022. 4. 13). 패션가, 컨서스 소비 이끈다. *서울파이낸스*. 자료검색일 2023. 1. 25, 자료출처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206>

네이버 지식백과. (2023. 1. 3). 컨서스 패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연구소. 자료검색일 2023. 1. 23. 자료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45667&cid=43667&categoryId=43667>

- 도간오쿰, 서미희, 이연희. (2022). 소피아 비조비티 폴딩 기법을 활용한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 소피아 비조비티 폴딩 기법을 활용한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 *복식문화*, 30(4), 513-528.
- 심상대. (2020. 3. 25). 땅에 묻으면 스프르~ 분해...국내 첫 생분해 코트.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22. 1. 22, 자료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9263848>
- 명수진. (2022. 10. 14). 쓰레기속에서 패션을 찾아낸다. *우먼센스*. 자료검색일 2023. 2. 20, 자료출처 <https://www.womansense.co.kr/woman/article/52140>
- 문윤경. (2019). 컨셔스 패션으로서 니트 패션제품의 유형과 가치. *패션과 니트*, 17(3), 50-57.
- 박미선. (2021). *현대패션에 나타난 컨셔스패션의 미적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버려진 옷에서 다시 옷으로: 가먼트 리사이클. (2021. 12. 7). *미디어호성*. 자료검색일 2022. 12. 20, 자료출처 <https://blog.hyosung.com/5395>
- 소비에 나이가 따로 있나요? 이제는 '뉴 노멀 중년'에 주목할 때!(2020. 5. 8). *CJ NEWSROOM*. 자료검색일 2023. 1. 22, 자료출처 <https://cjnews.cj.net/소비에-나이가-따로-있나요-이제는-뉴-노멀-중년/>
- 심상대. (2020. 3. 25). 땅에 묻으면 스프르~ 분해...국내 첫 생분해 코트.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23. 4. 23, 자료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9263848>
- 심희정. (2021. 1. 18). '공유옷장' 성주희 클로젯세서 대표 "중고 - 렌탈 하이브리드 '함께 입고 없애자' 했죠". *서울경제*. 자료검색일 2023. 4. 20, 자료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6EPN5O6>
- 안승진. (2022. 6. 27). 봉제 후 폐기 '자투리 원단' 재활용한다. *세계일보*. 자료검색일 2023. 2. 20, 자료출처 <https://m.segye.com/view/20220626516515>
- 안재형. (2022. 7. 11). 파타고니아 | "유행을 팔지 않습니다, 버리지 말고 입으세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사업하는 '파타고니아'.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23. 3. 11, 자료출처 <https://www.mk.co.kr/news/culture/10382916>
- 유재부. (2019. 3. 29). 막스마라, 자투리 원단으로 만든 '에코 패딩 코트' 재활용 주도. *패션엔미디어*. 자료검색일 2021. 11. 25, 자료출처 https://www.fashionn.com/board/read_new.php?table=1025&number=28081
- 윤경희. (2020. 11. 20). 안 팔리던 옷이 세상 힙한 옷으로...의류 쓰레기의 재발견. *중앙일보*. 자료검색일 2021. 10. 20, 자료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25952#home>
- 윤승. (2023). 조각으로 이어 붙인 아메리칸 빈티지. *jenstore*. 자료검색일 5,22, 자료출처 https://jentstore.com/promotion/event_view?no=509&event_category=Brand%20LAB
- 윤진영, 임은희. (2015).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 실현을 위한 디자인 방법론-ZWPM 유형 특성을 중심으로-. *복식문화*, 23(6), 929-939.
- 이서연. (2022. 7. 11). 번개장터, 한정판 명품 한 자리에 모은 '브그스트 컬렉션'. *한국섬유신문*. 자료검색일 2022. 12. 20, 자료출처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25>
- 이영선. (2017). 서브트렉션 커팅방법을 활용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개발. *한국패션디자인학회*, 17(2), 21-35.
- 이유선, 최윤미. (2020). 칠고늘이와 접기를 활용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1), 93-108.
- 이정민. (2022). 김현정 할리케이 대표 친환경 함께한 토털 브랜드를~. *패션비즈*. 자료검색일 2023. 3. 23, 자료출처 <http://www.fashionbiz.co.kr/PN/?cate=2&recom=2&idx=195436>
- 이정재. (2021).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특징 몇가지. *이로운넷*. 자료검색일 2022. 12. 20, 자료출처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340>
- 이진선. (2022. 11. 30) 중고명품 전성시대, 베스트에르 콜렉티브, 트렌비, 발란? 획기적인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리세일 플랫폼은 무엇? *바자*. 자료검색일 2022. 12. 20, 자료출처 <https://www.harpersbazaar.co.kr/article/72821>
- 이채민. (2017. 10. 18). 지속가능한 패션. W코리아.

- 자료검색일 2023. 1. 25, 자료출처 <https://www.wkorea.com/2017/10/18/%EC%A7%80%EC%86%8D-%EA%B0%80%EB%8A%A5%ED%95%9C-%ED%8C%A8%EC%85%98/>
- 이한나, 김하경, 이유진. (2019. 7. 17). Z세대의 에코섹시...유기농 과일 고르듯 옷도 소재·생산 과정 따져.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22. 12. 20, 자료출처 <https://www.mk.co.kr/news/business/8902283>
- 장지영. (2021.1.21). 업사이클 비건브랜드 할리케이, 활발한 사업 추진. *공감신문*. 자료검색일 2023.1.11. 자료출처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696638>
- 정하정, 박주희. (2015). 파츠파츠 임선옥(PartspARTs IMSEONOC)의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15(4). 171-186.
- 정현. (2018). 뉴노멀 시대의 국내 패션산업 메가트렌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9(4). 391-404.
- 제혜윤. (2023.6.15.). 자투리 원단으로 만든 디젤의 데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순환형 재활용 시스템 프로젝트! *바자*. 자료검색일 2023. 6. 30, 자료출처 <https://www.harpersbazaar.co.kr/article/78385>
- 조신원, 이지연. (2015). 교육적 관점에서의 Zero Waste 패션디자인프로세스 가이드라인 개발. *복식*, 65(4). 91-108.
- 지속 가능한 패션을 넘어 컨서스 패션으로! 국내 친환경 소재 패션 스타트업. (2020. 6. 17). *미디어효성*. 자료검색일 2022. 12. 23, 자료출처 <https://blog.hyosung.com/4838>
- 최지흥. (2022. 9. 9) 컨서스열풍① 패션업계, '컨서스 패션' 열풍분다. *시장경제*. 자료검색일 2023. 3. 20, 자료출처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34>
- 패션레볼루션 캠페인을 아십니까? 윤리적인 패서니스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2016. 4. 19). *이로운넷*, 자료검색일 2023. 1. 12, 자료출처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97>
- 허가영. (2018). 남성복 제로웨이스트 패턴 커팅 연구. *인문사회*21, 9(3), 629-643.
- 허진영. (2019). 제로 웨이스트를 적용한 가방디자인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3), 507-518.
- 황소현. (2021. 3. 22). 리바이스, '워터리스' 데님 소재 활용...코튼나이즈 햄프진 공개. *데일리뉴스*. 자료검색일 2023. 2. 20, 자료출처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6707>
- Joan Marc. (2012. 6. 26). David Andersen Copenhagen; designing waste out of fashion. *Zero Waste Europe*. 자료검색일 2023. 3.1 2, 자료출처 <https://zerowasteeurope.eu/2012/06/david-andersen-copenhagen-designing-waste-out-of-fashion/>
- Jason Walsh. (2017). The Zero Waste Movement. 자료검색일 2023. 6. 11, <https://zerowasterepublic.com/the-zero-waste-movement/>
- Katheleen Fasanella. (2011. 4. 19). Review of the yield exhibition(zero waste), Fashion- Incubator. 자료검색일 2023. 4. 12, 자료출처 <https://fashion-incubator.com/review-of-the-yield-exhibition-zero-waste/>
- Make it zero waste: Kimono Twist Dress. (2015. 5. 8). HollyMcquillan.com. 자료검색일 2023. 5. 4, 자료출처 <https://hollymcquillan.com/author/hollymcquillan/>
- Maison Martin Margiela Artisanal Collection/ 마르티엘라의 아티저널 컬렉션. (2011. 10. 5). *네이버블로그*. 자료검색일 2023.3.23, 자료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oo_too_loo&logNo=20139667126
- Mark Holgate. (2023. 3. 2). 2021 Marine Serre F/W. *Vogue*. 자료검색일 2023. 4.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1-ready-to-wear/marine-serre>
- Nicole Phelps. (2019. 6. 3). 2019 Maison Margiela F/W. *Vogue*. 자료검색일 2023. 4. 24,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couture/maison-martin-margiela>
- OAT. (2023). The world's first biodegradable shoes that bloom. 자료검색일 2023. 2. 23, 자

료출처 <https://www.oatshoes.com/>
Sarah Mower. (2020. 2. 26). 2020 Maison
Margiela F/W. *Vogue*. 자료검색일 2023. 4. 24,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
[Sustainability Data Analysis] 럭셔리 패션브랜드와
차세대 친환경 소재. (2022. 8. 9) *패션넷코리아*.
자료검색일 2023. 3. 4, 자료출처
<https://www.fashionnet.or.kr/sustainability/88237/>
[Sustainability Data Analysis] 재판매와 과잉 소비.
(2023. 1. 12). *패션넷코리아*. 자료검색일 2023.
1. 23, 자료출처 <https://www.fashionnet.or.kr/sustainability/109009/>